

한일 양국의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의 수행 실태에 관한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Housework Related to Daily Meals in Korean and Japanese Familie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교 수 이 기 영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윤 미 립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Prof. : Ki young L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 : Oi Sook Kim

Dept. of Consumer Studies & Resource management,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Mi Rim Yun

〈 목 차 〉

- | | |
|------------|--------------|
| I. 서론 | 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I.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performance mode of housework related to daily meals. The data for 214 Korean couples living in Seoul and 136 Japanese Couples in Tokyo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ime diaries. The performance mode of housework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employment status of wiv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enerally Koreans and Japanese wives had similar patterns in the time use of meals preparation and dish washing. In both nations Husbands seldom

participated meals preparation, wives did most part of the work. But Japanese husbands of full-time employed wives spent more time on meals preparation than their Korean counterparts did. Korean wives received more help from other family members and paid labor, on the contrary Japanese wives purchased more ready-made goods for food preparation.

1. 서 론

가사노동은 가정내에서 가족원-주로 여성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보수의 활동으로 의·식·주 및 육아관련 활동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유지하고 미래의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일상 생활의 유지, 재생산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가사노동은 가족과 함께 초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가사노동은 또한 고유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지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즉 가사노동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생활 문화의 일부를 구성한다. 가사노동의 문화적인 요소는 가사노동의 수행에 있어서 일종의 규범 또는 표준으로 작용하며 가사노동이 개별가정에서 사적으로 수행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화적 표준은 모든 가정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가정이 어떤 역사적 시기와 국가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시기·다른 국가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가사노동의 수행양식을 갖게 된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의생활과 주생활 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서구화가 덜 진행된 식생활 영역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와는 달리 지금까지 가정학의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수행을 가족의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이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미시경제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신가정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족원들은 시장재와 가정재 모두를 통해 효용을 얻으며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시간을 직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 여가에 배분하며 시장재를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Becker(1976)의 가계

생산이론이 등장한 후 가사노동의 수행을 가족원의 시장노동의 시간가치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되어 주부의 취업이 가사노동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문화적인 규범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개별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알맞은 방식으로 가사노동이 수행된다는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합리적인 이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사회이므로 가사노동의 수행도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여성의 일로 여기는 인식을 비롯하여 문화에 의해서 규정되는 여러 가지 가사노동에 대한 규범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수행에 영향을 주며 사회적 노동에 참여한 여성의 의식은 변하더라도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전혀 자신의 책임으로는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식생활의 경우, 가사노동의 생산물이 가족원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되며 가족의 기호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품대체가 가장 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기술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가족원간의 분담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식사는 매일 행해지며 또 고정된 식사시간 전에 일정한 양의 가사노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취업주부에게 관리하기 힘든 가사노동 영역이면서, 각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식생활 영역은 의·식·주생활 중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 남아 있으며 주부의 자율성이 가장 제약을 받는 부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생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가사노동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두가지 요인 즉, 문

화적 규범과 부인의 취업이라는 개별 가정의 상황에 따라 가사노동의 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적 규범과 가사노동의 수행

산업화 이후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는 주로 남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여성만이 남아 사적이고 소비적인 성격을 가진 지금과 같은 형태의 가사노동을 수행하게 되면서 남성은 사회적 노동을 담당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별분업의 이데올로기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현대로 오면서 여성의 취업은 확대되었으나 가사노동은 일차적으로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은 변하지 않았으며 남성의 가정 내 역할 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정은 여전히 남성에게는 휴식의 장소지만 여성에게는 주된 노동의 장소로 최근의 연구에서도 전업 주부와 취업주부 가정 모두에서 50% 이상의 남편들이 전혀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 1994).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NHK(1994)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일본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서구 6개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짧으며 취업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 규범은 가사노동의 수행자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람직한 생활의 수준에 대하여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집단 표준 역시 문화의 산물로 발생한다(김외숙 외, 1992). 가사노동의 경우에도 어떤 질의 산출물을 만들어 낼 것인가는 가족의 선택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문화적 표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식생활에서도 누가 음식을 만들 것인가, 어떤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가, 가정에서 만든 음식을 먹을 것인가, 시장에서 구입한 음식을 먹을 것인가 등의 식생활 양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문화적인 표준이 영향을 준다. 또한 가사노동을 대

체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시장제도 각국의 산업화 수준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양식에 의해 영향을 받아 시장에 제공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간의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이러한 문화적 규범이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의 수행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2. 여성의 취업과 가사노동의 수행

1) 여성 취업과 가사노동시간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시간사용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비취업주부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나는데, 이는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부 자신의 시간압박으로 인한 제약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를 통하여 주부의 취업에 따라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 이기영 외(1994)의 연구에 의하면 평일에는 전업주부가 8시간 20분, 취업주부가 3시간 28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였으며 남편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부인의 취업과 상관 없이 20분 정도로 나타났다. 휴일에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가사노동 시간이 거의 비슷해져서 5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났다. 남편들은 전업주부 남편이 1시간 30분, 취업주부 남편은 30분 더 많은 2시간 정도를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에는 주부들은 약 2시간 정도를 소비하였다. 그러나, 부인의 취업과 상관 없이 남편들은 휴일에도 식사준비와 설거지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森ます美(1983)의 연구를 통하여 일본의 가사노동 시간 실태를 보면 부인의 평일의 가사노동 시간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모두 한국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휴일에는 부인의 취업형태와 관계 없이 6시간 30분에서 7시간 정도로 한국보다 길게 나타났다. 남편들은 평일에는 전업주부 남편이 12분을, 취업주부 남편이 40분을 가사노동에 소비하였으며 휴일에는 전업주부 남편이 1시간 30분, 취업주부 남편이 3시간을 소비하였다. 식생활관련 가사노동 시간은 주부

의 경우 전체적으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한국과 유사하였으며 남편의 참여는 일본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에는 수입노동 시간과 완전 반비례 관계를 보이나 휴일에는 비슷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평일과는 달리 휴일에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전업주부 가정의 남편들은 한국과 일본 모두 성역할고정화된 모습을 띠어 가사노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으나 취업주부 가정의 남편은 일본이 한국보다 성평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식사준비는 가사노동시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성역할 고정적인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시간에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또 한국과 일본에서 서로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한일간의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시간을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2) 여성 취업과 가사노동의 수행주체

부인의 취업상태나 노동시간이 남편의 가사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나 대체로 한국의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여성의 취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들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의 종류도 성별로 유형화된 과업에만 제한되어 있다(최수선, 1995; 조미환, 1997). 취업주부의 경우 남편보다는 시모나 친정모, 가정부 등에 의한 분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외숙 외, 1994).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가사노동은 거의 여성들이 담당하는데 식사준비와 설거지, 청소 등이 대표적인 영역이다(Blair & Lichter, 1991). 여러 연구에서 남편들은 주로 주택관리·육아·장보기 등의 덜 일상적인 일에 참여하며 식사준비, 설거지 등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수, 1984; 森ます美, 1983; 大竹美登利, 1989; 이기영 외, 1994; 이승미, 1997). 또한 가사노동 수행의 성차는 자녀들에게도 나타나 딸들이 주로 식사관리에 참여하며 이러한

경향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고정된다고 한다(이정수, 1984).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평일에는 전업주부가 전체 가사노동의 97.8%, 시간제 취업주부가 96.4%, 전일제 취업주부가 84.4%를 담당하며, 휴일에는 주부들이 전체적으로 70~80%의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森ます美, 1983). 식사준비는 여러 가사노동 영역 중에서도 매우 여성적인 과업으로 취업 여부와 상관 없이 여성들이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다(森ます美, 1983; 大竹美登利, 1989).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식사준비는 가사노동의 영역 중에서도 성별로 고정화된 영역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들이 거의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주부의 취업은 전혀 식사준비에 남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는가, 여성들 사이에서는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이 어떻게 분담되고 있는가, 부모와 자녀간의 분담은 어떠한가, 식사준비에 있어서 지불된 노동력의 이용 정도는 어떠한가를 살펴 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3) 여성 취업과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가계생산모델이 가정학에 도입된 이후로 이 모델은 가사노동의 상품대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 가계생산모델에 따르면 가계는 총소득의 제약하에서 시장재와 시간을 결합하여 생산되는 가계상품의 조합 중 최상의 것을 선택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 한다. 따라서 주부가 취업하여 시간비용이 상승하면 대체효과에 의해 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하고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며, 시간제약에 직면하는 취업주부들은 가계생산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사노동시간을 자본이나 타인의 노동력으로 대체하게 된다(Strober & Weinberg, 1980).

국내외 대다수연구들은 가계생산이론에 따라 주부의 취업을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의 유의한 결정변수로 보고 연구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식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연구를 보면 Strober & Weinberg (1977, 1980), Reilly(1982)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이 인스턴트 식품의 사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Weagley & Norum(1989)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시간가치가 여러 가지 가사대체 서비스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시간소비적인 과업인 식사준비와 세탁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유현(1994)의 연구결과도 비슷하게 주부의 시장노동시간이 가사 서비스이용과는 오히려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우리 나라의 연구는 결과가 일치되지는 않으나 주부가 취업한 경우에 식생활 영역에서 대체상품의 이용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1987; 김미향·한재숙·이효수, 1988; 이승미, 1989; 제미경, 1994). 그러나, 최근에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제미경(1994)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취업주부들이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로는 라면이나 식빵은 월 6회 이상 자주 소비되었으며 필요 정도와 사용정도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냉동식품, 반찬, 찌개거리 등은 필요로 하는 정도는 높았으나 실제 사용정도는 월 1-2회로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대부분의 가정이 편의식품을 구매한 경험은 있으나 이용하는 횟수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통해 볼 때 편의식품이 우리의 일상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로부터 대체로 한국은 주부가 취업했을 경우 식생활에서 편의식품을 보다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가사노동 사회화의 정도를 조사하면서 구매 경험을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구매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가공식품이 일상의 식생활에서 어느 정도를 비율을 차지하는지 파악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가정의 식단을 통하여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고 상품대체의 정도가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차이가 나는지 또 한일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근로자 가정 부부의 식생활관련 가사노동 수행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한일 근로자 부부의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시간량은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어떠한가?
2. 한일 근로자 부부 가정에서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의 수행주체는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어떠한가?
3. 한일 근로자 부부 가정의 식생활에서 상품대체의 정도는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어떠한가?
4. 한일 근로자 부부 가정의 식생활의 내용은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IV.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는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완성한 시간일지표와 질문지이다. 회의에서는 주로 양국의 생활문화의 차이를 통합하기 위한 조정과정이 이루어졌다. 한일 양국 공통으로 아침식사와 저녁식사의 음식명 및 각 음식을 가정에서 조리한 정도, 조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지가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되었으며, 식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시간 즉, 조리시간과 설거지시간은 시간일지표를 통하여 조사되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조사대상은 18세 이하의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 남편과 그 부인으로 한국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이며, 일본의 경우 도쿄(東京)의 세타가야구(世田谷區)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목표 표본은 한국의 경우 240쌍, 일본의 경우 162쌍의 부부이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 부부 214쌍, 일본 부부 136쌍 이었다.

조사는 한일 양국 모두 1995년 10월 16일에서 11월 4일 사이에 면접이나 피조사자의 기록에 의해 실

시되었으며, 조사된 자료는 사전에 양국의 연구자들이 합의한 원칙에 따라 부호화하여 분석되었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일 양국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을 보면 한일 공동으로 부부 모두 30대가 가장 많다. 그러나, 평균 연령은 한국의 조사대상자가 일본의 대상자보다 4-5세 젊다. 교육수준은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고등학교 졸업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집 단		한 국				일 본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20-29	12	5.6	44	20.7	6	4.7	12	8.5
	30-39	113	52.8	100	46.9	60	44.2	61	45.7
	40-49	60	28.0	61	28.6	52	38.0	49	35.7
	50세 이상	29	13.6	8	3.8	18	13.2	14	10.1
	평 균	38.9		36.1		42.8		40.8	
교육 수준	중졸미만	4	1.9	19	9.3	4	3.1	1	0.8
	고졸	50	24.2	76	37.3	20	14.7	39	28.7
	전문대졸	16	7.7	21	10.3	6	4.7	47	34.9
	대졸이상	137	66.1	88	43.2	101	74.4	44	32.6
취업 형태	전일제	214	100.0	82	39.4	133	100.0	79	58.1
	시간제	0	0.0	25	12.0	0	0.0	29	21.3
	무직(주부)	0	0.0	99	47.6	0	0.0	27	19.9
직업	판매서비스직/노무직	41	19.1	36	16.9	12	8.8	8	9.1
	사무직	47	22.0	32	15.0	42	30.9	46	52.3
	전문기술직	62	29.0	34	16.0	40	29.4	32	36.4
	관리직	64	29.9	1	0.5	33	24.3	2	2.3
소득	100만원 이하	34	15.9	175	81.4				
	101-150만원	66	30.8	27	12.6				
	151-200만원	67	31.3	9	4.1				
	201만원 이상	47	22.0	4	1.9				
	8만엔 미만					3	2.2	46	33.8
	8-15만엔 미만					0	0.0	16	9.5
	15-25만엔 미만					15	10.2	19	14.0
	25-35만엔 미만					25	18.4	33	23.5
35-50만엔 미만					53	38.2	20	14.7	
50만엔 이상					40	29.4	2	1.5	
가사 보조자	유	50 (23.4)				24 (18.0)			
	무	164 (76.6)				109 (82.0)			

자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특히 부인의 경우 한국은 전문대 졸업생은 일본보다 훨씬 적으나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 여자 전문대학이 발달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인의 취업형태를 보면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전일제 취업이 39%, 시간제 취업이 12%, 전업주부가 48%로 전업주부 가정이 가장 많고, 일본 대상자는 각각 58%, 21%, 20%로 일본의 기혼여성이 시간제로 일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유직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남편의 경우 한국은 일본보다 판매서비스직과 노무직, 관리직의 비율이 많으며, 부인의 경우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판매서비스직/노무직, 사무직, 전문기술직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일본의 부인은 사무직 조사자가 절반(52%)을 넘는다.

가사보조자는 한국이 일본보다 가사보조자가 있는 비율이 5% 더 많다

V. 연구결과 및 논의

1.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시간량

우선 한일 양국 부부의 평일의 식사준비 및 설거지 시간의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식사준비 시간은 대체로 비슷하나 설거지 시간은 일본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근무형태 별로는 양국 모두 부인의 직장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일관되

게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든 때문이며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가사참여로는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평일 식사준비 시간은 전업주부가 1시간 46분, 전일제 취업주부가 1시간 6분으로 주부가 취업했을 경우 40분이나 줄어들지만 남편의 조리 시간은 1분에 불과하여 가정에서 조리는 거의 전적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거지에서는 전업주부 가정의 남편이 2분,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의 남편이 4분으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도 전업주부 가정과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의 대부분을 여성이 수행하고 있으나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남편의 조리시간이 6분, 설거지시간이 10분으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 일본의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남편이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에 적은 시간이나마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3〉을 통하여 휴일의 식생활관련 가사노동 시간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평일과 마찬가지로 양국의 조리 시간은 비슷하나 설거지 시간은 일본이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설거지 시간의 차이는 전업주부 가정에서 한국은 29분, 일본은 52분으로 크게 나타났다. 휴일에는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는 사라져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 시간은 양국 모두 2시간 정도로 평준화되었다.

한국은 평일과 마찬가지로 휴일에도 조리과 설거지가 대부분 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휴일에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서도 남편의 가사

〈표 2〉 평일의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 시간

(단위 : 시간·분)

가사노동	한국						일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조리	0.01	0.00	0.01	1.06	1.19	1.46	0.06	0.01	0.01	1.06	1.28	1.37
설거지	0.04	0.00	0.02	0.21	0.37	0.39	0.10	0.02	0.01	0.30	0.41	1.04
전체	0.05	0.00	0.03	1.27	1.56	2.25	0.16	0.03	0.02	1.36	2.09	2.41

〈표 3〉 휴일의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 시간

(단위 : 시간·분)

가사 노동	한국						일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전일제	시간제	전업 주부	전일제	시간제	전업 주부	전일제	시간제	전업 주부	전일제	시간제	전업 주부
조리	0.02	0.01	0.04	1.23	1.22	1.27	0.12	0.17	0.05	1.19	1.16	1.18
설거지	0.01	0.00	0.02	0.28	0.32	0.29	0.12	0.06	0.07	0.45	0.48	0.52
전체	0.03	0.01	0.06	1.51	1.54	1.56	0.24	0.23	0.12	2.06	2.04	2.10

노동 시간은 3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본은 휴일의 경우 남편의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에의 참여가 전체적으로 평일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은 휴일에 남편이 24분의 시간을 조리와 설거지에 소비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조리 시간은 비슷하나 설거지 시간은 일본이 한국의 2배 정도로 길게 나타났다. 부인의 근무 형태에 따른 차이는 평일에는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 시간이 완전 반비례 관계를 보이나 휴일에는 이러한 차이가 사라져 평준화 되는 경향을 보인다. 남편들의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 시간은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과 전업주부 남편은 국가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은 일본의 남편이 식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의 수행주체

한일 양국에서 식사준비는 가족원 중 누구에 의해 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라 가족원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분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 가정의 아침식사부터 살펴 보면 부인만이 전적으로 조리를 담당하는 가정이 전업주부 가정의 69.7%,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의 60.0%,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의 47.7%를 차지하여 부인이 취업했을 경우 전적으로 아침식사 준비를 담당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만이 아침식사 준비를 하는 가정은 부인의 근무 형태와 상관 없이 전무하

였으며, 자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단,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남편과 부인이 함께 아침식사준비에 참여하는 비율이 6.1%로 그 외 가정의 0.0%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아침식사의 준비에서 두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인과 기타가족원이 함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전업주부 가정의 10%,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의 16.0%,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의 11.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타가족원이란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를 말하는 것으로 부인이 취업했을 경우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식사준비를 분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 가정의 저녁식사의 조리를 누가 담당하는가를 살펴 보면 아침식사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먼저 부인만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는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전업주부 가정의 66.7%,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의 44.0%,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의 40.2%로 부인이 취업할 경우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비율은 40% 정도로 비교적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부인과 기타 가족원이 저녁 식사 준비를 분담하는 가정으로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의 20%,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의 17.1%, 전업주부 가정의 12.1%를 차지하였다. 부인이 취업했을 경우에 아침식사와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에서도 여러 가족원이 조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서 부인과 남편, 부인과 자녀가 조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전업주부 가정에서는 기타 가족원만이 전적으로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는 없고 주부의 보조자로서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기타

가족원이 전적으로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¹⁾

났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과 달리 남편만이 전적으로 식사준비를 담당하는 가정이 비교적 적은 비율이

〈표 4〉 아침·저녁 식사 준비의 분담 ¹⁾

(단위 : %)

조리에 참여한 사람		한 국			일 본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아침 식사	부인	47.7	60.0	69.7	83.4	84.0	89.5
	남편	0.0	0.0	3.0	12.2	5.9	7.9
	자녀	0.0	0.0	1.0	0.8	2.5	0.0
	기타 가족원	4.9	4.0	0.0	0.0	4.3	0.0
	가족원 외의 타인	0.0	4.0	0.0	0.0	0.0	0.0
	부인+남편	6.1	0.0	0.0	2.4	2.5	0.0
	부인+자녀	3.6	0.0	2.0	0.0	0.0	2.6
	부인+기타 가족원	11.0	16.0	10.1	0.4	0.0	0.0
	부인+남편+자녀	1.2	0.0	0.0	0.8	0.0	0.0
	남편+자녀	1.2	0.0	0.0	0.0	0.8	0.0
	부인+가족원 외의 타인	2.4	0.0	0.0	-	-	-
	기타	4.9	0.0	1.0	-	-	-
	저녁 식사	부인	40.2	44.0	66.7	82.2	85.2
남편		0.0	0.0	2.0	8.9	6.7	1.2
자녀		0.0	0.0	0.0	1.7	2.2	0.0
기타 가족원		7.3	4.0	0.0	5.2	3.7	4.7
가족원 외의 타인		1.2	4.0	0.0	0.0	0.0	0.0
부인+남편		6.1	4.0	3.0	1.7	1.5	0.0
부인+자녀		4.9	8.0	0.0	0.3	0.7	1.2
부인+기타 가족원		17.1	20.0	12.1	0.0	0.0	0.0
부인+남편+자녀		0.0	0.0	0.0	0.0	0.0	0.0
남편+자녀		0.0	0.0	0.0	0.0	0.0	0.0
부인+가족원 외의 타인		1.2	0.0	1.0	-	-	-
기타		8.5	0.0	2.0	-	-	-

다음으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 보자. 일본의 경우, 아침과 저녁 식사 모두 부인의 근무형태와 상관 없이 부인만이 전적으로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우리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게 나타

기는 해도 존재하였다. 특히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아침식사는 12.2%, 저녁식사는 8.9%의 가정이 전적으로 남편이 조리를 담당하였으며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에서도 아침과 저녁 각각 5.9%, 6.7%의

1) 기타는 3인 이상이 함께 조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부인+자녀+기타가족원, 남편+부인+기타가족원, 부인+자녀+가족원외의 타인, 부인+기타가족원+가족원외의 타인 등이 포함되었다.

일본은 가족원외의 타인이 참여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가족원 외의 타인이 포함되는 분류범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가정이 남편이 전적으로 조리를 담당하였다. 반면 기타 가족원이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은 일본이 매우 낮았으며, 가족원외의 타인이 조리를 담당하는 경우는 전무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인과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함께 조리를 분담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취업주부 가정에서도 여러 명의 가족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식사준비의 분담 실태를 살펴 본 결과 양국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부인의 취업에 의한 차이보다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양국 모두 조리의 주된 담당자는 여성이었으나 일본은 주부만이 전적으로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이 부인의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80% 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핵가족적인 형태가 한국보다 보편적임을 보여주며 이에 반해 한국은 부인과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가 분담하여 식사준비를 수행하는 비율이 많았다. 한국의 경우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은 부인과 남편에 의해 분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내의 여성들간에서 분담되어 2인 이상에 의한 공유가 보편적인데 반해 일본은 주로 주부이기는 해도 개인이 가사노동을 책임을 지고 있다. 이는 가족형태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지만 식생활의 구조 또는 음식문화 자체가 한국이 더 복잡해서 여러 명이 조리해 참여해야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녀간의 분담을 보면 조리의 경우 양국 모두 성에 따른 역할분담의 고정화가 아직도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어 부인의 취업과 상관 없이 남편의 식사준비의 분담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을 비교하면 일본 남편들이 식사준비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3.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의 상품대체

한일 근로자 부부 가정의 식생활에서 상품대체의 정도는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한국의 경우 아침·저녁 식사 모두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침

식사의 경우 반가공식품 또는 완전가공식품을 이용하는 비율은 전업주부가정 16.7%,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 18.9%,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 19.9%로 나타나 부인의 취업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완전가공품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 14.5%로 가장 높았다. 한국 가정의 아침 식사에서는 주부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이용하는 경우가 모든 가정에서 30% 이상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료를 사서 식사 전에 직접 조리한 음식의 비율은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 5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업주부 가정 48.0%,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 44.4%의 순이었다.

한국 가정의 저녁식사는 주부가 식사전에 직접 조리를 하는 비율이 모든 가정에서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는 비율은 약 26%로 아침 식사때 보다는 약간 줄어들었다. 반면에 상품대체의 비율은 전업주부 가정 9.6%,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 7.7%,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 9.5%로 모든 가정에서 10% 이하로 아침식사보다도 더욱 낮아졌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아침 식사에서는 가공식품의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정에서 상품대체의 정도가 50% 전후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업주부 가정에서 반가공품이 전체 음식의 32.9%, 완전가공품이 25.0%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아침식사에서는 식사 전에 주부가 직접 조리를 한 음식의 비율이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서 44.1%,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에서 43.7%, 전업주부 가정에서 35.5%로 오히려 취업주부의 가정에서 주부가 직접 조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주부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일제의 5.9%, 시간제의 9.2%, 전업주부 가정의 6.6%로 아주 낮아 그 비율이 30% 이상인 한국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일본 가정의 저녁식사는 가공식품의 비율이 대폭 줄어들어서 20% 이하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저녁 식사에서는 주부가 식사 전에 직접 조리를 한 음식

〈표 5〉 아침·저녁 식사의 음식에서 가공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

이용 정도		한 국			일 본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아침 식사	재료를 사서 식사 전에 직접 조리	44.4	52.2	48.0	44.1	43.7	35.5
	주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또는 데워서 사용	35.7	31.1	35.2	5.9	9.2	6.6
	거의 되어 있는 것을 사서 추가로 조금 가공함	5.4	11.1	6.1	25.6	24.4	32.9
	다 조리되어 있는 것을 사서 그대로 이용	14.5	7.8	10.6	24.4	22.7	25.0
저녁 식사	재료를 사서 식사 전에 직접 조리	64.3	66.7	63.7	73.6	80.0	80.1
	주부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또는 데워서 사용	26.3	25.6	26.7	7.5	3.7	4.7
	거의 되어 있는 것을 사서 추가로 조금 가공함	2.6	3.4	3.7	8.6	4.4	4.7
	다 조리되어 있는 것을 사서 그대로 이용	6.9	4.3	5.9	10.3	11.9	10.5

의 비율이 매우 높아서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에서 약 80%를 차지하였으며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서도 약 7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의 비율은 저녁식사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7.5% 이하의 작은 비율만을 차지하였다.

음식의 조리양식을 살펴 본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한일 양국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은 상품대체의 정도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국간의 차이는 아침이 저녁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 일본의 아침식사 패턴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반영해 준다. 주부가 식사 전에 직접 조리하는 비율은 일본 저녁 식사가 더 높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주부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김치같은 저장식품이 많은 한국의 식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양국의 식사준비 양식의 차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위하여 다음에서 양국의

식생활의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식생활의 내용

한국의 아침식사는 모든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밥, 국, 김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외 나물이나 달걀 부침, 김구이 등이 주된 식단이었으며 빵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서 5위,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과 전업주부 가정에서는 6위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저녁 식사의 내용도 아침과 거의 차이가 없어서 모든 가정에서 밥, 국, 김치, 찌개를 기본으로 하는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반찬으로는 나물과 생선이 주된 비율을 차지 하였다. 아침식사와 달라진 점은 빵이 아예 순위에서 사라진 것과 생선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일본 역시 모든 가정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일본 가정의 아침식사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토스트로 아침 식사는 보편적으로 빵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과일, 달걀부침, 커피, 샐러드, 우유 등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나 서구화된 식생활이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아침 식사와 달리 저녁 식사는 전통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밥과 된장국, 야채와 생선이 주된 식단이다.

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의 <표 5>에서 가공식품의 이용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남편들이 전적으로 식사준비를 담당할 수 있는 것도 가공식품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국 가정의 식생활에서는 주부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표 6> 아침·저녁 식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음식

(단위 : %)

순위	한국			일본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아침 식사	1	밥	밥	밥	토스트	토스트·된장국	토스트
	2	김치	김치	김치	과일	밥	과일
	3	국	국	국	밥	과일	달걀부침
	4	야채무침 김구이	김구이	야채무침	우유	우유	커피 밥
	5	찌개 빵	야채조림 야채무침	달걀부침 찌개	된장국 달걀부침	샐러드 채소절임 달걀부침	샐러드 우유
	6	우유 달걀부침	찌개 생선구이 빵·달걀부침	김구이 빵·우유	햄·베이컨	커피 생선구이	빵 햄·베이컨
저녁 식사	1	김치	밥·김치	밥	밥	밥	밥
	2	밥	찌개	김치	된장국	샐러드	삶은 음식
	3	국·찌개	국·김구이 야채무침	찌개 야채무침	샐러드	된장국	된장국
	4	야채무침	생선조림 고기구이	국	채소절임	삶은 음식	샐러드
	5	생선볶음	생야채	김구이	생선구이	야채무침	야채무침 카레라이스 과일·두부
	6	생선구이 김구이	생선볶음 생선구이 젓갈	생선구이	삶은 음식	생선구이	스프 삶은 야채 생선회 생선구이 고기구이

한국과 일본 가정의 식단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는 양국 모두 발견할 수 없었고 국가 간의 문화적인 차이만이 존재하였다. 일본에서는 아침 식사가 서구적으로 이

저장식품이 많은 한국의 식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주부들이 식사 전에 해야할 가사노동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편들의 식사준비에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족한 가사노동시간에 적응하기 위해 한국 주부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이용하는 전략을, 일본 주부들은 가공식품을 보다 많이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양국의 식사준비 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실제 식사준비가 이루어지는 양상은 이와 같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VI. 결론 및 제언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의 수행 실태와 한일간의 문화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도시근로자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시간일지와 질문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시간은 부인의 경우 한일간의 문화적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라서 차이를 보여 양국 모두 시장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일관되게 가사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남편들의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 시간은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과 전업주부 남편은 국가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은 일본의 남편이 더 많이 식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의 주된 수행자는 양국 모두 여성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한일간의 문화적 차이가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일본은 주부만이 전적으로 조리를 담당하는 비율이 높는데 반해 한국은 주부의 취업시 부인과 시어머니·친정어머니가 분담하여 식사준비를 수행하는 비율이 높음으로써 양국간의 가족형태의 차이가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수행 양식에 반영되고 있다. 조리의 경우 양국 모두 성에 따른 역할분담의 고정화가 아직도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어 부인의 취업과 상관 없이 남편의 식사준비의 분담은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을 비교하면 일본 남편들이 식사준비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셋째, 음식의 조리양식을 통해 상품대체의 정도를

살펴 본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한일 양국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은 상품대체의 정도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아침식사에서는 가공품의 비율이 50% 정도에 달하였다. 주부가 식사 전에 직접 조리하는 비율은 역시 일본이 높았으며 한국은 주부가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는 경우가 일본과 비교하면 현저히 많았다. 이는 저장식품이 많은 한국의 식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넷째, 한국과 일본 가정의 식단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본 결과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는 양국 모두 발견할 수 없었고 국가 간의 문화적인 차이만이 존재하였다. 한국은 아침과 저녁식사 모두 전통적인 형태로 나타났으며, 일본은 저녁식사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침식사는 서구화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침 식사에 가공식품의 이용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남편들이 전적으로 식사준비를 담당할 수 있는 것도 가공식품을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식생활 관련 가사노동 수행에 있어서는 한일 양국의 문화적인 차이가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른 차이는 주로 가사노동시간량의 차이로 나타나며 문화적인 차이는 수행 양식을 통해 나타난다. 양국 간의 주된 차이는 첫째, 가족구성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한국의 경우 취업주부들은 확대가족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이루어진 NHK(1994)의 한일비교 연구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가사노동시간의 주된 차이는 한국의 경우 시모·친정모, 파출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는 데에 있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양국의 가족형태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볼 수 있고 식사 내용 자체가 한국이 보다 복잡하여 조리에 가족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로 상품대체의 정도는 일본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의 원인은 일본의 식사가 서구화된 것과 두 나라의 식품산업 수준

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지금까지 가사노동의 수행을 주로 가족이나 주부개인관련 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 것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사노동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생활양식·생활문화와 우리 문화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생활양식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생활양식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미향·한재숙·이효수(1988), 도시 주부의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인식 및 소비에 관한 연구-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6(3), 69-78
- 2)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1),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3) 이기영(1987), 가사노동의 상품대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이기영·김외숙·서창원·이승미(1994), 도시근로자가정 부부의 생활시간구조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1), 31-46.
- 5)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6) 이승미(1997), 가족공유시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의 수행방안-전문직, 비전문직 주부와 비취업 주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정연주(1987), 도시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제미경(1994), 취업주부의 시간절약재화 및 서비스 요구와 소비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조미환·임정빈(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69-386.
- 11) 조유현(1994), Factors Affecting Household Expenditures for Services, 대한가정학회지 32(3), 45-62.
- 12)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Blair, S.E. & Lichter, D.T.(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14) Reilly M.D.(1982),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 15) Robert O. Weagley, Pamela S. Norum(1989), Household Demand for Market Purchased, Home Producible Commoditi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1), 6-18.
- 16) Strober & Weinberg C.B.(1977),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141-147.
- 17) Strober & Weinberg C.B.(1980), "Strategies Used by Working and Nonworking Wives to Reduce Time Pressur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6, 339-348.
- 18) NHK放送文化研究所世論調査部(1994), 生活時間の國際比較, 大空社
- 19) 世田谷ライフティン研究會(1996), 世田谷區民の生活時間のシエンタ分析, せたがや女性センターらぶらす調査報告書
- 20) 森ます美(1983), 第 4 章 妻の就業と夫婦の生活時間, 伊藤セツ, 天野寛子, 森ます美, 大竹美登利 共著, 生活時間, 東京, 光生館.
- 21) 大竹美登利(1989), 第 2 章 夫と妻の生活時間構造, 伊藤セツ, 天野寛子 共著, 生活時間生活様式, 東京, 光生館.